

복식에 표현된 검정색의 색채특성

송금옥* · 김영인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겸임교수* ·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전공 교수

검정색은 죽음, 절망 등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색채이미지를 가졌지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식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으며, 검정색에 대한 색채정보와 색채심리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패션컬렉션에는 검정색을 사용한 디자인이 매 시즌 소개되고 있다. 이는 검정색이 지닌 색채특성이 패션색채계획 중 특히 복식디자인에의 적용단계에서 활용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에 표현된 검정색을 살펴보고 패션색채계획 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검정색의 색채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문헌연구를 통하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검정색 복식을 살펴보고, 복식에의 검정색 사용이 현대적 감성에 부합되는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스타일을 대상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하였다.

복식에 표현된 검정색의 색채특성 연구 결과, 검정색은 복식 디자인 시 단순성, 축소성, 강조성, 대비성, 조화성을 꾀하고자 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색채로 나타났다.

첫째, 검정색은 색채가 지닌 단순성으로 인하여 색채의 강조를 원하지 않거나 현대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복식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단순성은 17세기 네덜란드 복식과 19세기 부르조아, 댄디 룩을 비롯해서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활용되었으며, 현대 패션에서도 미니멀리즘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색채로 지속적인 사용을 보이고 있다. 둘째, 검정색은 실제 면적보다 사물을 더 작아 보이게 하는 축소성을 가지고 있어, 날씬해 보이게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패션디자인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축소성이 의복에 처음 나타난 것은 중세 시대의 검은 호우즈로 볼 수 있으며, 1920~1930년대 검은 밀착형 드레스와 1980년대 '바디 컨셔스 블랙'으로 이어졌다. 셋째, 검정색은 배경에서 사물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는 강조성을 지니며, 색의 부재라는 특성으로 인해 착용자의 외곽선을 강조하거나 디자인의 특이한 형, 재질감 등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조를 위해 검정색이 사용된 예는 15세기 버건디 궁정 의상과 16세기 스페인 의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형태 강조를 위한 색채로 새롭게 시도되었다. 넷째, 검정색의 대비성은 검정색 복식을 착용하였을 때 인체의 피부가 더욱 희게 보이는 것과 하나 이상의 유채색과 검정색이 배색되었을 때 유채색의 색감이 더욱 선명해지고 강해지는 것에서 볼 수 있다. 17세기 여성복과 패치, 댄디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비치룩에서의 검정색의 사용을 흔히 볼 수 있다. 다섯째, 검정색이 지닌 조화성은 복식 디자인의 색채조화 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부조화를 이룬 배색을 조화롭게 하는 분리배색시에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옵 아트, 팝 아트, 몬드리안 룩 등의 디자인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현대 패션에서도 여러 유채색을 조합하여 하나의 복식에 사용할 경우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검정색은 이러한 독특한 색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착용 시 코디네이션을 수월하게 하며, 상품기획자에게는 복식디자인 적용을 용이하게 하여 패션색채계획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